

■ 원 저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

황승주, 오상우, 김순남, 황환식*, 조비룡, 허봉렬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제주의료원 가정의학과*

—요 약—

연구배경 : 여성의 흡연은 남성과 같은 질병이외에 여러 가지 여성 고유의 질환의 위험율을 증가시키며, 특히 임신부의 흡연은 조산, 사산등 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근래 우리 나라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어 성인 여성의 흡연율도 곧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일부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더 본격적인 성인 여성흡연에 관한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성인 여성금연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4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여성 수진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흡연여부를 응답한 여성들 중에서 흡연자 492명과, 비 흡연자 가운데서 흡연자의 3개 연령군(20-39세, 40-59세, 60세이상)과 1:2로 짝짓기하여 무작위 추출한 대조군 984명을 대상으로 젊은층(20-39세), 중년층(40-59세), 노년층(60세 이상)의 3개 연령층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흡연자들의 흡연량은 모든 연령층에서 10개피 이하가 제일 많았고(평균 64.6%), 다음은 11-20 개피이었으며(평균 29.1%), 각 연령층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기간은 10년 이하가 젊은층과 중년 층에서 제일 많았고(젊은층 74.7%, 중년층 47.4%), 다음이 11-20년(각각 24.7%, 34.1%)이었으며, 노년 층에서는 21-30년이 38.3%로 가장 많았다. 흡연과 관련된 요인으로 다변량분석의 결과 젊은층에서는 음 주여부, 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 결혼생활여부, 높은 스트레스여부, 자기 인생에의 불만족여부의 5개 변 수가 의미 있었다. 안좋은 유대관계여부,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여부, 생활위기여부, 안전띠 착용여부, 월평 균수입의 경우는 단변량분석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중년층에서는 음주여부, 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 결 혼생활여부, 운동여부, 높은 스트레스여부, 자기 인생에의 불만족여부의 6개 변수가 의미 있었다. 안좋은 유대관계여부,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여부, 생활위기여부, 안전띠 착용여부의 경우는 단변량분석에서만 의 미가 있었다. 노년층에서는 음주여부, 운동여부, 교육여부의 3개 변수가 의미 있었다. 생활위기여부, 안전 띠 착용여부, 월평균수입은 단변량분석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강한 관련 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주여부이었다.

결론 : 성인 여성흡연과 관련된 주요 요인중 교정 가능한 변수는 음주, 스트레스, 불만족, 운동등이었다. (가정의학회지 2000;21:344~356)

중심단어 : 성인 여성, 흡연, 관련요

서 론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등 각종 암과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폐질환, 위궤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적 요인으로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¹⁾. 또한 흡연은 음주, 운동부족 등 다른 비건강행태와 연관되어 있어²⁾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998년 현재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³⁾.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금연운동이 전개되어 미국과 서구에서는 흡연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자(20세 이상)의 흡연률은 지선하⁴⁾가 대한결핵협회와 한국갤럽의 조사자료를 1980년을 기준으로 연령 교정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면 1980년에 79.3%에서 1999년 65.1%로 약 14%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나라들 중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1980년의 22.9%에서 1996년의 44.4%로 약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도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 흡연 연령이 더욱 낮아지는 동시에 여학생의 흡연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⁵⁾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흡연률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92년 6.1%, 1995년 6.0%로 최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⁶⁾. 또한 지선하⁴⁾의 상기 자료에 의하면 1980년 12.5%, 1996년 5.6%, 1999년 4.8%로 캐나다(29%)⁶⁾, 미국(23%)⁷⁾, 일본(14.5%)⁸⁾에 비하여 아직 낮은 편이나 최근 20년간 15-19세의 여성흡연자의 수가 약 6배로 급증하고 있으므로⁹⁾,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성인 여성의 흡연률도 곧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흡연은 남성과 같은 질병 이외에 임신율의 저하,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생리상의 문제, 조기폐경등의 위험율을 증가시키며, 특히 임신부가 흡연을 할 경우 유산, 조산, 저체중아, 태아가

형, 사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유아돌연사, 영유아의 성장지연과 호흡곤란등의 문제를 일으켜 후손에 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음^{6,9)}을 생각할 때 그 영향이 심각하다. 금연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금연 정책과 금연 운동의 결과 성인 남자의 흡연률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률 감소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있는 실정이다⁶⁾.

우리나라 여성흡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여 여중고생이나 여대생등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연구나, 근로여성등 특정직업에 한정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더 본격적인 성인 여성흡연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성인 여성금연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1995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4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수진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흡연여부를 응답한 여성들 중에서 흡연자 492명을 환자군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흡연자 전체를 흡연자와 같이 3개 연령군(20-39세, 40-59세, 60세이상)으로 나눈 후 각 연령군 별로 흡연자수의 2배를 SPSS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 추출하여 대조군(984명)으로 삼아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성인 여성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정의하였고, 흡연자는 조사당시 흡연을 하는 자로, 비흡연자는 전혀 흡연한 적이 없거나 과거에 흡연하다가 금연한 지 6개월이 경과한자(과거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현재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2. 연구방법

설문내용에는 (1)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직업, 교육정도, 결혼상태, 월 평균수입 (2)흡연

습관에 관한 것으로 흡연여부, 흡연기간, 흡연량, 금연여부와 금연기간 (3) 건강생활습관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관계, 한해동안의 큰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 생활변화 스트레스량, BEPSI 스트레스량, 자기 인생에의 만족도, 음주여부와 음주횟수 및 음주량, 운동여부와 운동횟수, 안전띠 착용여부, 염분 섭취 정도등을 포함하였다.

생활변화 스트레스량은 1992년 배중면등¹⁰⁾이 외래에서 간편하게 스트레스량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30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BEPSI 스트레스량은 한국어판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수평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¹¹⁾. 비만도는 대상자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여 표준체중((신장-100)×0.9)의 90%이내를 저체중, 90%-110%를 정상, 110%-120%를 과체중, 120%이상을 비만으로 하였다. 음주량은 각 대상자들이 1주일 동안에 마시는 각 종류의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환산한 후 미국 NIAAA¹²⁾에서 제시한 여성의 적당한 음주 권고량인 1일 12그램(1주 84그램)이하를 소량음주자, 여성의 위험한 음주량인 1주 132그램이상을 대량음주자로, 그사이를 중량음주자로 범주화하였다.

대상자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20-39세를 젊은층(younger age), 40-59세를 중년층(middle age), 60세 이상을 노년층(old age)의 3개 연령층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예비연구의 결과 교육 정도와 결혼상태가 각 연령층에 따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고, 흡연기간이나 직업, 월평균 수입등은 6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생활습관에 관한 여러 항목에서도 각 연령층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의 각 시대적 사회문화 환경의 차이,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 건강생활습관의 차이가 교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통계분석방법은 단변량분석에서는 EpiInfo version 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 square test와 Score test for trend를 사용하였고, 다변량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logistic regression분석을 SPSS 8.0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젊은 층(20-39세)이 32.9%, 중년층(40-59세) 54.9%, 노년층(60세 이상) 12.2%로 중년층이 제일 많았다. 각 연령층에서의 평균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은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가정주부가 제일 많았고, 젊은층의 경우 흡연자에서는 서비스직, 판매직순서로, 비흡연자에서는 판매직, 사무직순으로 많았다.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는 역시 서비스직, 판매직순서로, 비흡연자에서는 판매직, 전문직순서로 많았다. 노년층의 경우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무직, 농수산직 순서로 많았다(Table 1).

결혼상태는 젊은층의 경우 흡연자에서는 결혼, 미혼, 이혼이나 별거순으로 많았고, 비흡연자에서는 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이혼이나 별거, 미혼의 순이었다.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는 결혼, 이혼이나 별거, 사별순이었고, 비흡연자에서는 결혼, 사별, 이혼이나 별거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흡연자는 사별, 결혼, 미혼의 순서를 보였고, 비흡연자는 결혼, 사별, 이혼이나 별거순으로 많았다(Table 1).

교육정도는 젊은층의 경우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대졸미만, 대졸이상, 고졸미만의 순이었고 무학은 없었다.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는 대졸미만, 고졸미만, 중졸미만의 순이었고, 비흡연자에서는 대졸미만, 중졸미만, 고졸미만의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흡연자는 중졸미만, 고졸미만, 무학의 순이었고, 비흡연자는 중졸미만, 고졸미만, 대졸미만의 순이었다(Table 3-1).

월 평균수입은 노년층이 젊은층이나 중년층보다 수입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2).

2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양상

먼저 대상자들중 흡연자는 492명이었다.

흡연자들의 흡연량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10개피 이하가 제일 많고(젊은층 66.7%, 중년층 60.4%, 노년층 66.7%), 다음은 11-20개피(순서대로 26.5%, 34.1%, 26.7%), 21-30개피, 31개피순이었다. 그리고 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 No (%)

	Younger age ¹⁾		Middle age ²⁾		Old age ³⁾	
	Smoker	Nonsmoker	Smoker	Nonsmoker	Smoker	Nonsmoker
Age						
mean (S.D.)	37.3(3.22)	36.5(3.61)	54.2(4.76)	52.8(5.01)	65.3(3.92)	67.1(3.88)
Occupation						
Professional workers	12(7.4)	27(8.3)	10(3.7)	33(6.1)	4(6.7)	5(4.2)
Administrative/managerial	5(3.1)	10(3.1)	6(2.2)	16(3.0)	0	1(0.8)
Clerical workers	9(5.6)	28(8.6)	6(2.2)	15(2.8)	0	1(0.8)
Trade	31(19.1)	29(9.0)	29(10.7)	45(8.3)	1(1.7)	3(2.5)
Service	32(19.8)	17(5.2)	50(18.5)	30(5.6)	0	2(1.7)
Agriculture/fishing	0	1(0.3)	10(3.7)	26(4.8)	9(15.0)	14(11.7)
Production/laborers	0	5(1.5)	9(3.3)	12(2.2)	0	0
Housewife	50(36.4)	187(57.9)	126(46.7)	335(62.0)	29(48.3)	74(61.7)
Others	8(5.0)	12(3.8)	8(3.0)	5(0.9)	1(1.7)	3(2.5)
None	5(3.1)	6(1.9)	13(4.8)	16(3.0)	15(25.0)	16(13.3)
No-response	1(0.6)	2(0.6)	3(1.1)	7(1.3)	1(1.7)	1(0.8)
Marital status						
Unmarried	32(19.8)	17(5.2)	15(5.6)	10(1.9)	3(5.0)	1(0.8)
Married	103(63.6)	280(86.4)	164(60.7)	428(79.3)	25(41.7)	68(56.7)
Divorced/Separated	24(14.8)	21(6.5)	55(20.4)	30(5.6)	2(3.3)	11(9.2)
Part for ever	2(1.2)	5(1.5)	34(12.6)	68(12.6)	29(48.3)	38(31.7)
No-response	1(0.6)	1(0.3)	2(0.7)	4(0.7)	1(1.7)	2(1.6)
Total	162(100.0)	324(100.0)	270(100.0)	540(100.0)	60(100.0)	120(100.0)
age distribution of all subjects : see table 2						¹⁾ 20-39 years old
education status : see table 3-1						²⁾ 40-59 years old
income : see table 3-2						³⁾ ≥ 60 years old

Table 2. Smoking habits of study subject.

Unit : No(%)

	Younger age	Middle age	Old age
Amount of Smoking(cigarettes/day)			
≤ 10	108(66.7)	163(60.4)	40(66.7)
11-20	43(26.5)	92(34.1)	16(26.7)
21-30	6(3.7)	11(4.0)	2(3.3)
≥ 31	5(3.1)	4(1.5)	2(3.3)
Duration of Smoking (Years)			
≤ 10	121(74.7)	128(47.4)	8(13.3)
11-20	40(24.7)	92(34.1)	19(31.7)
21-30	1(0.6)	41(15.2)	23(38.3)
≥ 31	0(0.0)	9(3.3)	10(16.7)
Total	162(100.0)	270(100.0)	60(100.0)

연령층사이의 흡연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기간은 젊은층과 중년층은 10년이하가 각각 74.7%, 47.4%로 제일 많고 다음이 11-20년, 그다음 이 21-30년 순이었다. 노년층에서는 21-30년이 38.3%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11-20년(31.7%), 그 다음이 31년 이상, 마지막이 10년 이하이었다. 이것은 나이증가에 따른 흡연기간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생각된다(Table 2).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과의 관계

직업은 먼저 취업여성과 가정주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에서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각각 OR 2.38, 1.87 로 취업여성이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여성을 판매서비스직과 그 이외의 직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역시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에서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각각 OR 3.34, 2.30으로 판매서비스직이 많았다(Table 3-1).

교육정도는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흡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경우는 흡연자에서 교육정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Table 3-1).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미혼, 이혼이나 별거, 사별한 여성들이 현재 결혼하여 부부가 같이 살고있는 여성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OR 3.67, 2.51), 노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다.

월 평균수입에서 보면 젊은층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고, 중년층에서는 수입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2).

4. 대상자들의 건강생활습관과 흡연과의 관계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인종은 여성들이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많았으나(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의 순서대로 OR= 2.56, 2.48, 2.53), 노년층의 경우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P=0.127).

지난 1년간의 큰 불행이나 개인적 상실의 경험과 흡연과의 관계를 보면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생활변화 스트레스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자의 경우 생활변화 스트레스량이 비흡연자보다 많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300점 이상의 높은 생활위기를 겪은 사람들보다는 250점에서 299점까지의 중등도의 생활위기를 겪은 여성들의 교차비가 더 높게 나왔다.

BEPSI로 측정된 스트레스량에서도 젊은층과 중년층은 흡연자에서 스트레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경우는 그러한 연관성이 없었다

자기인생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흡연자에서 만족에서 보통, 불만족으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교차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음주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하였고, 음주자중에서는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흡연자중 음주자는 젊은층에서 59.3%, 중년층에서 40.0%, 노년층에서 21.7%로서 나이가 적을수록 음주자의 비율이 높았다.

운동에 있어서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운동을 적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젊은층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성은 없었으나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흡연군에서 5.6%, 비흡연군에서 13.0%로서 흡연자가 4회이상의 의미있는 운동을 적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운전 또는 승차시의 안전띠 착용과 흡연은 전 연령층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안전띠착용을 안하는 경향을 있었다(Table 3-2).

식이습관중 엽분섭취와의 관련성은 중년층의 경우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엽분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의 젊은층과 노년층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비만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중년층의 경우만 흡연자중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들이 많았고, 젊은층이나 노년층은 그렇지 않았다(Table 3-3).

황승주 등 :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

Table 3-1.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smoking experience.

Unit : No (%)

	Younger age			Middle age			Old age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Occupation 1.									
Occupational	97 (59.9)	129 (39.8)	2.38** (1.59-3.60)	128 (47.4)	182 (33.7)	1.87** (1.36-2.57)	15 (25.0)	29 (24.2)	1.32 (0.58-3.00)
Housewife	59 (36.4)	187 (57.7)		126 (46.7)	335 (62.0)		29 (48.3)	74 (61.7)	
No-response	6 (3.7)	8 (2.5)		16 (5.9)	23 (4.3)		16 (26.7)	17 (14.1)	
Occupation 2.									
Trade service	63 (66.0)	46 (35.7)	3.34** (1.86-6.03)	79 (29.3)	75 (13.9)	2.30** (1.41-3.76)	1 (1.7)	5 (4.2)	0.34 (0.01-3.67)
Non-trade Service	34 (34.0)	83 (64.3)		49 (18.1)	107 (19.8)		14 (23.3)	24 (20.0)	
Education status									
None	0 (0.0)	0 (0.0)		8 (3.0)	7 (1.3)	1.00	8 (13.3)	6 (5.0)	1.00†
< middle	8 (4.9)	25 (7.7)	1.00	67 (24.8)	160 (29.6)	0.37	34 (56.7)	63 (52.5)	0.40
< High	24 (14.8)	43 (13.3)	1.74	73 (27.0)	108 (20.0)	0.59	9 (15.0)	21 (17.5)	0.32
< Collge	92 (56.8)	159 (49.1)	1.81	83 (30.7)	162 (30.0)	0.45	4 (6.7)	16 (13.3)	0.19
≥ College	36 (22.5)	95 (29.3)	1.18	38 (14.1)	100 (18.5)	0.33	3 (5.0)	13 (10.8)	0.17
No-response	0 (0.0)	2 (0.6)		1 (0.4)	3 (0.6)		2 (3.3)	1 (0.8)	
Marital status									
Not married ^h	58 (35.8)	43 (13.3)	3.67** (2.27-5.93)	104 (38.5)	108 (20.0)	2.51** (1.79-3.52)	34 (56.7)	50 (41.7)	1.85 (0.94-3.66)
Married	103 (63.6)	280 (86.4)		164 (60.7)	428 (79.3)		25 (41.7)	68 (56.7)	
No-response	1 (0.6)	1 (0.3)		2 (0.7)	4 (0.7)		1 (1.7)	2 (1.7)	
Income (10,000won/month)									
< 100	9 (5.6)	25 (7.7)	1.00 †	46 (17.0)	90 (16.7)	1.00	33 (55.0)	38 (31.7)	1.00 †
100-200	49 (30.2)	113 (34.9)	1.20	84 (31.1)	181 (33.5)	0.91	11 (18.3)	38 (31.7)	0.33
200-400	62 (38.3)	126 (38.9)	1.37	72 (26.7)	164 (30.4)	0.86	6 (10.0)	20 (16.7)	0.35
≥ 400	38 (23.5)	48 (14.8)	2.20	49 (18.1)	87 (16.1)	1.10	2 (3.3)	10 (8.3)	0.23
No-response	4 (2.5)	12 (3.7)		19 (7.0)	18 (3.8)		8 (13.3)	14 (11.7)	
Total	162	324		270	540		60	120	

** P < 0.01 by chi square test.

† P < 0.05, by score test for tren

^h unmarried, divorce, separated, part for ever

Table 3—2.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smoking experience

Unit : No(%)

	Younger age			Middle age			Old age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good	14 (8.6)	12 (3.7)	2.56* (1.08—6.07)	14 (5.2)	12 (2.2)	2.48* (1.06—5.81)	6 (10.0)	5 (4.2)	2.53 (0.65—10.10)
Good	142 (87.7)	311 (96.0)		243 (90.0)	516 (95.6)		54 (90.0)	114 (95.0)	
No—response	6 (3.7)	1 (0.3)		13 (4.8)	12 (2.2)		0 (0.0)	1 (0.8)	
Major stressful events in past year									
None	66 (40.7)	188 (58.0)	1.00 †	130 (48.1)	328 (60.7)	1/00 †	35 (58.3)	73 (60.8)	1.00
1	54 (33.3)	88 (27.2)	1.75	71 (26.3)	127 (23.5)	1.41	17 (28.3)	28 (23.3)	1.27
≥ 2	29 (17.9)	32 (9.9)	2.58	46 (17.0)	53 (9.8)	2.19	3 (5.0)	12 (10.0)	0.52
No—response	13 (8.0)	16 (4.9)		23 (8.5)	32 (5.9)		5 (8.3)	7 (5.8)	
Amount of stress because of changes in life									
≤ 199	132 (81.5)	286 (88.3)	1.00 †	139 (51.5)	506 (93.7)	1.00 †	24 (40.0)	117 (97.5)	1.00 †
200—249	8 (4.9)	17 (5.2)	1.02	4 (1.5)	13 (2.6)	1.12	1 (1.7)	2 (1.7)	2.44
250—299	11 (6.8)	7 (2.2)	3.40	10 (3.7)	10 (1.9)	3.64	0 (0.0)	0 (0.0)	
≥ 300	11 (6.8)	14 (4.3)	1.70	8 (3.0)	11 (2.0)	2.65	35 (58.3)	1 (0.8)	170.63
No—response				109 (40.4)					
BEPSI scores									
≥ 22	27 (16.7)	110 (34.0)	1.00 †	88 (33.0)	250 (46.3)	1.00 †	29 (48.3)	65 (54.2)	1.00
17—21	77 (47.5)	155 (47.8)	2.02	112 (41.5)	222 (41.1)	1.43	20 (33.3)	36 (30.0)	1.25
≤ 16	58 (35.8)	59 (18.2)	4.01	65 (24.1)	68 (12.6)	2.72	7 (11.7)	17 (14.2)	0.92
No—response	0 (0.0)	0 (0.0)		5 (1.9)	0 (0.0)		4 (6.7)	2 (1.7)	
Satisfaction in her life									
Satisfied	29 (17.9)	97 (29.9)	1.00 †	39 (14.4)	123 (22.8)	1.00 †	7 (11.7)	13 (10.8)	1.00
Equivocal	60 (37.0)	146 (45.1)	1.37	103 (38.1)	269 (49.8)	1.21	31 (51.7)	61 (50.8)	0.94
Dissatisfied	62 (38.3)	61 (18.8)	3.40	98 (36.3)	109 (20.2)	2.84	16 (26.7)	38 (31.7)	0.78
No—response	11 (6.8)	20 (6.2)		30 (11.1)	39 (7.2)		6 (10.0)	8 (7.0)	
Alcohol drinking									
None	66 (40.7)	253 (78.1)	1.00 †	162 (60.0)	464 (85.9)	1.00 †	47 (78.3)	114 (95.0)	1.00 †
≤ 84g/wk	53 (32.7)	62 (19.1)	3.28	53 (19.6)	61 (11.3)	2.49	8 (13.3)	4 (3.3)	4.85
85—131g/wk	10 (6.2)	3 (0.9)	12.78	7 (2.6)	7 (1.3)	2.86	2 (3.3)	1 (0.8)	4.85
≥ 132g/wk	33 (20.4)	6 (1.9)	21.08	48 (17.8)	8 (1.5)	17.19	3 (5.0)	1 (0.8)	7.28
Exercise									
≥ 4/wk	9 (5.6)	42 (13.0)	1.00	30 (11.1)	86 (15.9)	1.00 †	6 (10.0)	23 (19.2)	1.00 †
1—3/wk	27 (16.7)	33 (10.2)	3.82	26 (9.6)	95 (17.6)	0.78	4 (6.7)	17 (14.2)	0.90
None	125 (77.2)	249 (76.9)	2.34	214 (79.3)	357 (66.1)	1.72	50 (83.3)	80 (66.7)	2.40
No—response	1 (0.6)	0 (0.0)		0 (0.0)	2 (0.4)		0 (0.0)	0 (0.0)	
Seat belt use									
Always	73 (45.1)	173 (53.4)	1.00 †	108 (40.0)	278 (51.5)	1.00 †	16 (26.7)	47 (39.2)	1.00 †
Sometimes	52 (32.1)	101 (31.2)	1.22	79 (29.3)	139 (25.7)	1.46	14 (23.3)	25 (20.8)	1.64
Hardly ever	33 (20.4)	46 (14.2)	1.70	75 (27.8)	106 (19.6)	1.82	26 (43.3)	35 (29.2)	2.18
No—response	4 (2.5)	4 (1.2)		8 (3.0)	17 (3.1)		4 (6.7)	13 (10.8)	
Total		162		324		270		540	
							60	120	

** P<0.01 by chi square test. † P<0.05, by score test for trend

" unmarried, divorce, separated, part for ever

Table 3-3.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smoking experience.

Unit : No (%)

	Younger age			Middle age			Old age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Smoker	Nonsmoker	OR
Excessive salt intake									
Never	23 (14.2)	35 (10.8)	1.00	23 (8.5)	61 (11.3)	1.00 [†]	4 (6.7)	17 (14.2)	1.00
Sometimes	96 (59.3)	242 (74.7)	0.60	162 (60.0)	352 (65.2)	1.22	35 (58.3)	69 (57.5)	2.16
Almost always	43 (26.5)	47 (14.5)	1.39	85 (31.5)	125 (23.1)	1.80	21 (35.0)	33 (27.5)	2.70
No-response	0 (0.0)	0 (0.0)		0 (0.0)	2 (0.4)		0 (0.0)	1 (0.8)	
Obesity									
Underweight	31 (19.1)	29 (9.0)	1.00	13 (4.8)	27 (5.0)	1.00 [‡]	3 (5.0)	3 (2.5)	1.00
Normal	89 (54.9)	195 (60.2)	0.43	134 (49.6)	184 (34.1)	1.51	21 (35.0)	33 (27.5)	0.64
Overweight	21 (13.0)	56 (17.3)	0.35	60 (22.2)	166 (30.7)	0.75	12 (20.0)	28 (23.3)	0.44
Obesity	21 (13.0)	44 (13.6)	0.45	63 (23.3)	163 (30.2)	0.80	22 (36.7)	56 (46.7)	0.39
No-response	0 (0.0)	0 (0.0)		0 (0.0)	0 (0.0)		2 (3.3)	0 (0.0)	
Total	162	324		270	540		60	120	

‡ P < 0.01, † P < 0.05 by score test for trend.

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lating selective variables to smoking experience in younger, middle, old age.

	Variable	B	exp(B) = OR	95% CI	P
Younger age	Alcohol drinking ¹⁾	1.3968	4.04	2.61 - 6.27	0.000
	Trade service ²⁾	1.0716	2.92	1.79 - 4.77	0.000
	Marital status ³⁾	1.0145	2.76	1.66 - 4.58	0.000
	High stress ⁴⁾	0.5621	1.75	1.04 - 2.97	0.036
	Unsatisfaction ⁵⁾	0.5388	1.71	1.02 - 2.87	0.041
Middle age	Alcohol drinking	1.3922	4.02	2.79 - 5.80	0.000
	Trade service	0.7598	2.14	1.44 - 3.18	0.000
	Marital status	0.7057	2.03	1.42 - 2.88	0.000
	Excercise ⁶⁾	0.6363	1.89	1.27 - 2.80	0.001
	High stress	0.6550	1.93	1.26 - 2.94	0.003
	Unsatisfaction	0.4688	1.60	1.10 - 2.32	0.013
Old age	Alcohol drinking	1.7803	5.93	2.07 - 17.00	0.001
	Excercise	0.9210	2.51	1.08 - 5.83	0.032
	Educational status ⁷⁾	1.1454	3.14	1.01 - 9.77	0.048

¹⁾ alcohol drinking or not

²⁾ her occupation is trade service or not

³⁾ married or not (unmarried, divorced, seperated, part for ever)

⁴⁾ high stress (BEPSI score ≤ 16) or not

⁵⁾ unsatisfaction in her life or not

⁶⁾ no regular exercise

⁷⁾ none or any education

5. 다변량분석의 결과

다변량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나온 변수들 중에서 직업, 교육정도, 결혼상태, 월 평균수입,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관계, 한해동안의 큰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 생활변화 스트레스량, BEPSI 스트레스량, 자기 인생에의 만족도, 음주, 운동, 안전띠 착용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변량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하여 직업은 판매서비스직과 그 외 직종으로 범주화하였고(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 교육정도는 무학과 국졸이상으로(교육여부), 결혼상태는 결혼 하여 같이 사는 경우와 그 이외의 미혼, 이혼이나 별거, 사별의 경우로 나누어 범주화하였으며(결혼생활여부), 유대관계는 좋거나 보통이다와 안좋다로(안좋은 유대관계여부),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은 없는 경우와 한번이상 있는 경우로(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여부), 생활변화 스트레스량은 199점이하의 건강생활변화와 200이상의 생활위기로(생활위기여부), BEPSI량은 16점 이하의 높은 스트레스량인 경우와 17점 이상의 중등도이하의 스트레스량으로(높은 스트레스여부), 자기 인생에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와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로(자기 인생에의 불만족여부), 음주는 비음주자와 음주자로(음주여부), 운동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운동여부), 안전띠착용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와 거의 안하거나 가끔 착용하는 경우(안전띠 착용여부)로 범주화하였고, 월 평균수입은 단변량분석할 때의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월 평균수입).

결과를 보면 먼저 20-39세의 젊은층에서는 음주여부, 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 결혼생활여부, 높은 스트레스여부, 자기 인생에의 불만족여부의 5개 변수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음주여부가 가장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와 결혼여부도 $P < 0.001$ 이하의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Table 4). 그러나 안좋은 유대관계여부,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여부, 생활위기여부, 안전띠 착용여부, 월평균수입의 경우는 단변량분석에서는 의미있었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40-59세의 중년층에서는 음주여부, 직업의 판매서

비스직여부, 결혼생활여부, 운동여부, 높은 스트레스여부, 자기 인생에의 불만족여부의 6개 변수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역시 음주여부였고, 직업의 판매서비스직여부와 결혼생활여부도 $P < 0.001$ 이하의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젊은층과 같았다(Table 4). 그러나 안좋은 유대관계여부, 불행이나 상실의 경험여부, 생활위기여부, 안전띠 착용여부의 경우는 단변량분석에서는 의미있었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60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음주여부, 운동여부, 교육여부의 3변수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주여부뿐이었다($P < 0.001$) (Table 4). 그리고 생활위기여부, 안전띠 착용여부의 경우, 월 평균수입은 단변량분석에서는 의미있었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이 결과들은 연령을 같이 보정하여도 변함이 없었다.

고 찰

흡연자들의 흡연량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10개피 이하가 제일 많고(젊은층 66.7%, 중년층 60.4%, 노년층 66.7%), 다음은 11-20개피(순서대로 26.5%, 34.1%, 26.7%), 21-30개피, 31개피순이었으며 각 연령층사이의 흡연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199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의 흡연량 기준이 반갑이하, 한갑, 한갑 반, 두갑이상으로 본 연구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⁵⁾. 건강한 중년남성들(40-59세)의 흡연량조사에서 20-30개피인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0-20개피이었던 것¹³⁾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다변량분석의 결과 흡연과 관련된 요인중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음주였다. 다변량분석에서 음주자의 비음주자에 대한 교차비는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에서 각각 4.04, 4.02, 5.93 이었고, 단변량분석에서도 음주량의 증가에 따라 교차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두 $P < 0.0001$ 이었다. 흡연자중 음주자는 젊은층에서 59.3%, 중년층에서 40.0%, 노년층에서 21.7%로서 나이가 적을수록 음주자의 비율이 높

아 젊은층의 음주는 흡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흡연과 음주의 이러한 관련성은 이충민¹³⁾의 건강한 중년남성의 흡연에 관한 연구결과나 최지호 등¹⁴⁾의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그동안 남성에서 잘 알려져 온 흡연과 음주의 상관관계가 여성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좀 오래되었지만 Walton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습관성 음주의 한 증상이며 정신의학적 장애의 한 증상이라고 하며 (Walton RG, 1984), Istavari¹⁵⁾은 음주가 카페인과 함께 흡연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젊은층과 중년층에서 음주 다음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은 직업의 판매서비스직 여부이었다(젊은층과 중년층에서 각각 OR 2.92, 2.14). 따라서 여성의 판매서비스직 종사는 흡연의 고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직업적 스트레스가 많고 흡연을 유혹하는 기회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년층에서는 직업을 가진 수가 너무 적고(25%), 판매서비스직은 더욱 적어(1.6%)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젊은층과 중년층의 경우 다변량분석에서 세 번째로 의미있는 변수는 결혼생활여부였다. 미혼이거나, 결혼했지만 별거중이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성들이 결혼하여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하여 높은 교차비(젊은층 2.76, 중년층 2.03)를 보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년층이하 여성들의 흡연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노년층만 따로 보았을 때 이러한 관련성이 없고, 사별한 노년층만 떼어 분석해 보아도 의미있는 관련성이 없는 것은 노년층의 흡연은 대부분 그 이전의 습연습관의 지속이고 결혼생활의 변화에 의한 충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관련요인은 스트레스였다. 젊은층과 중년층에서 BEPSI로 측정된 높은 스트레스량의 교차비는 각각 1.75, 1.93이었다. 그동안 남성에 있어서 흡연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보고가 있었다. 배종현¹⁶⁾은 의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한 흡연이 습관화된 경우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됨을 보고하였고, 최지호 등¹⁴⁾은 남자 의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중요한 흡연동기가 되며, 금연실패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송광호 등¹⁷⁾은 남성의 흡연행태에 따른 심리적 경향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치방의 일환으로 흡연을 지속하게 되며 흡연으로 완화된 기분은 머지않아 내성을 일으켜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되고, 금연을 시도하더라도 금단증상과 스트레스등이 겹쳐 성공하기 힘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흡연할 때의 동작과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불안에 대한 자기방어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한다¹⁸⁾. 이러한 스트레스와 흡연과의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본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캐나다의 여성흡연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주요 흡연동기가 됨을 보고하고 있다⁶⁾.

다섯 번째로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족여부가 중년층이하에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비가 젊은층, 중년층에서 각각 1.71, 1.60이었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다변량분석에서 또하나의 의미있는 변수는 운동여부였다(교차비 각각 1.89, 2.51). 이들은 젊은층보다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흡연을 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도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적게 한다¹³⁾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운동여부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연령에 의한 교란일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 흡연의 관련성에 대하여 캐나다 여성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일반적으로 낮아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보다 3배 높은 흡연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⁶⁾, 미국 여성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낮아져 대졸여성은 고졸미만의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1/3에 그친다고 보고되었다⁹⁾. 또한 국내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흡연대응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¹³⁾,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에서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노년층의 교육수준을 무학과 국졸이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다변량분석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젊은층이나 중년층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이 없었다. 산업

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최순옥²⁰⁾의 연구보고에서는 국졸과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자에서 다른 교육정도보다 흡연자가 많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과 교육정도와의 관련성문제는 앞으로 연령을 더욱 세분하여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나 단변량분석에서 운전 또는 승차시의 안전띠 착용과 흡연은 전 연령층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안전띠착용을 적게 하였다. 그러나 김선미 등²¹⁾이 대부분이 남자인 대상자들에 대하여 시행한 연구에서는 반대로 흡연자가 안전띠착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나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입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나 단변량분석에서 젊은층의 경우 흡연자가 수입이 많고, 노년층은 그 반대이며, 중년층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층의 흡연자는 취업등 사회활동이 활발하여 수입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사교적 활동이 빈번하며 흡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노년층은 저소득층이 어려운 생활의 스트레스를 흡연으로 해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각 연령층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식이습관중 염분섭취와의 관련성은 단변량분석에서 중년층의 경우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의 염분섭취가 비흡연자보다 많았다. 이것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젓갈류를 먹는 사람들의 흡연대응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고 한 보고¹³⁾와 유사한 결과이다. 과다한 염분섭취는 흡연과 함께 위암발생이나 고혈압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비만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단변량분석에서 중년층의 경우만 흡연자에서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층이나 노년층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비흡연군에서 과체중이 더 많다고 보고되었으나²²⁾, 김선미 등²¹⁾의 연구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특히 젊을수록 더욱 더 자신의 체중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캐나다의 여성흡연과 금연에 관한 연구에서 흡연 및 금연과 체중간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집중적인 연구(지금까지의 각국의 연구결과와 메타분석)가 행해진 바 있다. 그 결과로 여성들중에는 흡연이 체중을 줄여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이 흡연을 시작하는 동기가 된다는 데는 아직 증거가 거의 없어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지만, 젊은 여성들일수록 체중조절을 위하여 흡연을 시도할 위험은 어느 정도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전전한 체중조절 방법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 흡연자들은 흡연이 자신들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고 금연은 체중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남성들보다 많아 (Pirie 등이 1991년 67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면 금연이 체중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많았다.) 흡연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금연시 평균적인 체중증가와 비교하여 남녀모두 의미있는 체중증가는 없었고 남녀의 차이도 없었다는 연구보고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 금연시 약간의 체중증가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체중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흡연 및 금연과 체중문제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대상자가 서울의 일개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로서 표본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조사였으므로 여성흡연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인종은 영향으로 솔직한 응답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과 흡연상태에 대하여 일산화탄소측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흡연의 동기, 금연의 시도 여부나 성공실패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여성흡연율은 아직 서구 여러나라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젊은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흡연 및 금연에 대한 연구와 금연 운동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성인 여성흡연과 관련된 주요 요인은 젊은층이나 중년층의 경우 음주, 판매서비스직 종사,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상태, 높은 스트레스, 자기 인생에 불만족, 운동 안함등이었고, 이것들 중 교정가능한 변수로는 음주, 스트레스, 불만족, 운동 안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정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흡연의 예방과 금연교육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Holbrook JH. Nicotine addiction. In: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4th ed. McGraw-Hill, 1998:2516-9
2. Schoenbrn CA, Benson V. Relationships between smoking and other unhealth habits : United states, 1985. Adv Data Vital Health Stat[154]. Hyattsville, Md.:Public Health Service, May 1988.
3. American lung association. American lung association fact sheet-international tobacco use. 1998 Sep. Available from : URL : <http://www.lungusa.org>
4. 지선하. 한국인의 흡연실태-총 흡연자수 1,250만 명. 담배없는 세상. 1999 ; 6(121) : 8-12.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43호. 1997: 60
6. Health Canada on smoking and tobacco use. Reports and Reserch : Women and Smoking Cessation. Available from : URL: <http://www.hc-sc.gc.ca/english/tobacco.htm>
7.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Facts & Figures - 1997 ; Tobacco Use : 1-2 . Available from : URL : <http://www.cancer.org/>
8.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일본, 기업·공공기관등에서 금연운동 확산. 담배없는 세상. 1999 ; 7(122) : 6.
9.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실. 여성과 흡연. 담배와 건강 1998 ; 2 : 9-14.
10.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 허봉렬, 김철환.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가정의학회지 1992 ; 13(10) : 809-20.
11.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가정의학회지 1996 ; 17(1) : 42-9.
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The physician's guide to helping patients with alcohol problems. 1995 ; NIH publication no. 95-3769.
13. 이충민. 한국인 건강한 중년남성에서의 흡연습관과 다른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연구[석사 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97.
14. 최지호, 양윤준, 서홍관.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의 흡연실태 및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정의학회지 1995 ; 16(2) : 157-71.
15. Istavan J, Matarazza JD. Tobacco, alcohol, and caffeine use : a review of their interrelaionship. Psych bull 1984 ; 95 : 301-26.
16. 배종면.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94.
17. 송광호, 김경록, 박은희,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남성의 흡연행태에 따른 심리적 경향차이. 가정의학회지 1998 ; 19(3) : 312-9.
18. Kaplan HI, Sadock BJ. Drug dependence,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Maltimore/London. Williams and Wilkins, 1985 : 430-2.
19. CDC's TIPS. Facts on women and tobacco. 1998. Available from : URL : <http://www.cdc.gov/nccdphp/osh/data.htm>
20. 최순옥.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흡연을 조사[석사학위논문]. 경북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1990.
21. 김선미, 장인숙, 오정열, 노용균. 흡연과 건강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6 ; 17(6) : 400-6.
22. Albanes D, Jones DY, Micozzi MS, Mattson ME. Associations between smoking and body weight in the US population: analysis of NHANES II. Am J Public Health 1987 ; 77 : 439-44.

— Abstract —

**Smoking pattern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in Korean adult women**

Hwang Seung-Ju M.D., Ou Sang-Woo M.D., Kim Soon-Nam M.D.,
Hwang Hwan-Sik M.D.*, Cho Be-Long M.D., Huh Bong-Yul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eju Medical Center*

Background : Women smoker faces increased risk for heart disease, stroke, cancers, and respiratory diseases as well as a number of gender specific risks. Maternal smoking has been linked to harmful effects on their offspring such as increased incidence of premature, stillbirth an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etc. Recently, the rate of female adolescent smoking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e rate of adult woman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s aimed at obtaining basic information about smoking pattern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in Korean adult women.

Methods : From May 1995 to April 1999,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female visitors of Health Promotion Cent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number of smokers was 492. The control group (984 nonsmokers) was selected by 1:2 age group matched random sampling. Smokers and control group were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young age (20–39 years), middle age (40–59 years), old age (60 years and over) —and analysed the results using SPSS and EpiInfo software.

Results : The most frequent amount of cigarette smoking was below 10 cigarettes in all age groups. The duration of smoking was below 10 years in most young and middle age groups. In the old age group the duration of smoking was longer than others. Variable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included alcohol drinking, being engaged in trade service, being unmarried or divorced or separated or parted for ever, high stress status, dissatisfaction of life in young age group. The variable of no exercise was added to them in middle age group. In old age group alcohol drinking, no exercise, no school education were the positive meaningful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i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 : The modifiable variables associated with smoking in Korean adult women included alcohol drinking, high stress status, dissatisfaction of life and no exercise. (J Korean Acad Fam Med 2000;21:344~356)

Key words : adult women, smoking, associated factors.